

차정부 교과서 국정화 대응 교재 나왔다

광주교육청 등 4곳 공동제작 '광주 인권' 등 지역사 반영을 2학기부터 수업 활용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응해 광주·전북 등 시도교육청 4곳이 개발한 중·고교 역사교과서 보조교재(사진)가 올해 2학기부터 학교에 보급돼 수업에 활용된다고 광주시교육청이 23일 밝혔다.

교과서 보조교재는 광주시·세종시·강원도·전북도 교육청이 공동으로 2년 6개월에 걸쳐 만들었다. 일반적인 시대사는 물론 교재 개발에 참여한 4곳의 지역사도 충실하게 반영했다. 광주의 경우 인권·평화의 광주정신을 계승한 주제와 광주의 지역사, 세월호 사고까지 담았다. 중학교 보조교재 '주제로 보는 역사'는 8개 영역 36개 주제와 지역사 영역 20개 주제로 구성됐다. 고등학교 보조교재 '주제로 보는 한국사'는 7개 영역 80개 주제와 지역사 영역 15개 주제로 제작됐다.

4개 지역 교육청은 2016년 3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개발 및 사용승인 협약을 했으며, 집필진에는 역사교육 전공 교수와 교사 36명이 참여했다. 광주교육청은 교재 배포에 앞서 다음달 중·고교 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보조교재 활용연수를 실시해 학교 현장 활용성을 높일 계획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는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역사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

“건강히 다녀올게요”

선상무지개학교 출항식

전남도교육청 선상무지개학교 참가 학생들이 지난 22일 목포해양대학교에서 '2018 선상무지개학교 국제항해 출항식'을 갖고 13일에 걸친 항해에 들어갔다.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선상무지개학교는 도내 중학교 2학년 218명을 대상으로 이달 2일부터 8월 3일까지 12박 13일 동안 진행된다. 배를 타고 중국과 일본을 방문, 우리나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돌아보며 역사교과서를 만든다. 탐방 과정에서 중국, 일본 문화를 이해하는 활동을 통해 한·중·일 삼국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글로벌 인재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2일 전남도교육청 선상무지개 학교 국제항해 선박이 목포해양대학교를 출항하자 학부모, 교육청 관계자 등이 손을 흔들며 환송하고 있다. 학생들은 12박 13일간의 일정으로 배를 타고 일본과 중국에 둘러 해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살피고 각국 문화를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전남도교육청>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호남대, 영광서 자율주행 경진대회 진행

호남대학교(총장 서강석)는 오는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영광군에서 국내 최초로 개최되는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에서 'e-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호남대학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단(단장 정대원)은 최근 영광군청사에서 김준성 군수와 정대원(전기공학 교수) 단장이 'e-모빌리티 엑스포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업무협약은 '2018 영광 국제 스마트 e-모빌리티 엑스포' 준비의 하나로 호남대 4차산업혁명 사업단은 엑스포 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성과개최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EXPO 기간 동안 호남대는 미래자동차공학부 학생들을 중심으로 'e-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를 진행한다.

국내 10여개 대학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 전기자동차로 각 코스에서 주어진 미션을 수행하는 'e-모빌리티 자율주행 경진대회'는 자율주행전기차 분야에 필요한 4C(비판적 사고력, 소통능력, 창의력, 협업능력) 수행 기술 능력 우위를 평가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들의 각축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호남대 이외에도 광주과학기술원, 한국자동차공학회, e-모빌리티 연구센터, 홍익대 산학협력단 등 총 5곳이 체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코딩 어렵지 않아요” 조선대 초등생반 운영

조선대학교(총장 강동완) 생활과학교실(책임교수 홍성금)은 2018년 여름방학 특강으로 '코딩 특별반'을 운영한다. 이번 코딩 교육은 초등학생 2-6학년을 대상으로 4차례 운영된다.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 컴퓨팅적 호기심과 창조적 사고력을 갖춘 지역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미로 찾기 로봇 ▲빠른 길을 찾아라 ▲내비

게이션 게임 ▲달려라 햄스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광주지역 두암2동, 서창동, 신안동, 운암1동, 침단2동, 화정4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되는 6개 강좌의 수강생 접수는 조선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다음카페(광주 생활과학교실2)에서 교육장별 각 15명씩 온라인으로 모집 중이며 교육은 8월에 진행된다.

또한 같은 교육내용으로 무료로 진행되는 나눔과학교실을 함께할 복지관, 지역 아동센터 등의 교육장도 모집 중이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조선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다음카페에서 확인하면 된다. 생활과학교실은 한국과학창의재단과 광주시가 주관하며 복권기금위원회의 후원으로 조선대학교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과학체험프로그램이다. 문의 062-230-6846. /윤영기 기자 penfoot@

시험지 유출, 대입 개편에 영향 미칠까

교과성적 신뢰도 타격

중·고교에서 잇따라 내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사건이 터지면서 막바지에 다다른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시민정책참여단 550명이 참석하는 2차 속의를 27~29일 진행한다. 정책참여단은 대입 개편안 관련 자료집 외에 그간 전국 각지에서 진행된 토론회와 회의의 결과를 참고해 마지막 토론회를 진행한다. 정책참여단이 토론회를 끝낸 뒤 기존에 발표된 4개 시나리오에 각각 점수를 매기면 공론화위는 이를 분석해 8월 초 발표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의 권고를, 국가교육회의는 이런 공론화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정책참여단의 판단이 사실상 2022학년도 대입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교육계에서는 정책참여단의 토론회 과정에서 최근 잇따라 터진 내신 시험문제 유출 사건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생활기록부 위주 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이 가장 치열한 쟁점인데 내신 교과성적은 학생부

교과전형의 핵심 전형요소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2022학년도 대입개편 공론화와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대입정책포럼에서도 내신 교과성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교사가 시차를 두고 2개 이상의 학급에 같은 수행평가 문제를 내 자녀가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학부모가 있는가 하면, 수능보다 교과성적 경쟁이 학원을 통한 선행 학습을 더 부추킨다는 주장도 있었다. 특히 최근까지는 수성경력·봉사활동 같은 학생부 '비교과' 영역의 공정성 논란이 워낙 커 교과성적에 대한 불신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과성적의 신뢰도도 타격을 받은 모양새다. 학생들이 교무실에서 시험문제를 빼내는 수준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학부모와 행정실장이 함께 문제를 유출했다는 점은 이런 불신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입개편 공론화 과정에 참석했던 한 교원단체 관계자는 "학생부전형에 대한 반발은 주로 비교과 영역을 포함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 초점이 맞아 있었는데 시험문제 유출 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터지면서 이제 학생부교과전형에 대한 시선도 좁지 않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개 기관 후원' 한국장학재단 장학생 8월3일까지 모집

한국장학재단은 기업·기관·단체의 기부금을 바탕으로 한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581명을 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푸른등대 기부장학생 사업은 사회공헌을 원하는 단체가 정하는 요건에 따라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2학기에는 국민연금공단, 안전보건공단, 에프티, 우리은행, 하나금융그룹,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현대홈쇼핑, KDB나눔재단, KOSAF기부펀드 등 10개 기관이 15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선발 대상은 국민연금 수급자 또는 그 자녀, 산업재해 근로자 또는 그 자녀, 예

능·경영·경제·방송 관련 전공자, 다문화 또는 탈북가정 대학생, 김포공항 소음대책 지역 거주자, 저소득층, 사회배려계층, 보호시설 출신이다. 성적은 B학점(80점) 이상이어야 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www.kosaf.go.kr)에서 8월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되고, 선발결과는 10월 말 알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1599-2290)로 문의하면 된다. 기부를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전화(02-2259-2622, 02-2259-2624)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역) 토지:912,50㎡(276평) 건물:1,477,64㎡(446,9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48억 대로변, 전시효과최상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1,349㎡(408평) 건물:1,350,03㎡(408,3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61억 8차선대로변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7,662,4㎡(2,317,8평) 건물:6,864,61㎡(2076,5평) 지상3층 매매가:105억 아파트밀집지역,복합사우나건물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3,104,6㎡(939,1평) 건물:11,543,18㎡(3491,8평) 지상9층 매매가: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 ★ [건물] 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암동(근린상업지역) 토지:2,485,20㎡(751,77평) 건물:5,802,89㎡(1755,37평) 지상3층 매매가:85억 선운지구 상권밀집지역 (보증금 6억, 월수입 3천)

병원

- ★ [의료시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신기리 토지:8,630㎡(2610,56평) 건물:6299,19㎡(1905,50평)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100억 화순선대병원인근에 위치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619,62㎡(187,4평) 건물: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근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514,40㎡(155,6평) 건물:2,143,08㎡(648,2평)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토지:580,40㎡(175,57평) 건물:2,889,86㎡(874,18평) 지하2층 지상6층 매매가:37억 상권밀집지역에 위치, 주변 아파트밀집지역

토지

- ★ [토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토지:3,891㎡(1177평) 매매가:35억3천1백만
- ★ [토지]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토지:1948㎡(589,27평) 매매가:29억4천5백만 신양파크호텔에서 무등파크호텔가는 도로의 카페거리에 위치 투자가치최상

분양

제주 조천읍 스위스마을(타운하우스) 총 66세대 중 3단지4단지 31세대 분양 중 (1단지 2단지 분양완료) 타입 : 36평형, 45평형 2018.7월 입주예정 신개념 수익형 타운하우스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